

신 사 법 설

1. 다음 풀이가 맞으면 ○, 틀리면 × 를 하시오.

- 1) 신사님 법설에는 제자와 문답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
- 2) 이치와 기운은 그 근본이 각각 다른 것이다. ()
- 3) 화해 나오는 것은 한울의 기운이요, 움직이는 것도 한울의 기운이다. ()
- 4) 한울님을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라는 말은 옛날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다. ()
- 5) 대신사께서는 한울님 섬기는 것을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
- 6) 사람은 오행의 빼어난 기운이요, 곡식은 오행의 으뜸가는 기운이다. ()
- 7) 한울님은 비와 이슬을 내리시며, 사람과 만물에 의해서 조화를 나타내신다. ()
- 8) 도결은 포덕 34 년 1 월에 신사님께서 대도의 종지와 근본을 밝혀 더욱 지극한 정성으로 수도할 것을 당부하신 통유문이었다. ()
- 9) 천지부모는 글자만이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각각 다른 것이다. ()
- 10) 행주좌와와 어묵동정 등 모든 행위가 모두 다 천지 귀신 조화로 되는 것이다. ()
- 11) 한울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고요한 한 덩어리의 물질일 뿐이니, 이것을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
- 12) 부부가 불화하면 한울님이 싫어 하지만 화는 내리지 않으신다. ()
- 13) 한울은 만물의 정기일 뿐이요 사람의 정기는 아니다. ()
- 14)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요, 생각한 것을 이루려고 움직이는 것은 기운이다. ()
- 15) 마음은 한울에 있고 한울은 마음에 있다. ()
- 16) 기운은 혼원하고 마음은 허렁이지만 무궁한 조화는 없다. ()
- 17) 마음은 빈 가운데 영이 있어서 깨달음이 스스로 나와진다. ()
- 18) 진실한 것이 천지의 생명체가 될 수 없다. ()
- 19) 음양, 귀신, 조화, 명, 기운 등의 근본을 투철하게 알아야 한울을 안다고 할 수 있다. ()
- 20) 심령의 영험은 모르더라도 잡신의 영험을 아는 것은 병이 아니다. ()

- 21)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울님을 모신 한울사람이며 모든 물건에도 한울님의 기운이 통해 있으니, 한울님을 공경하여 섬기는 것 같이 사람을 공경하여 섬기고 물건까지도 공경해야 된다. ()
- 22) 일용행사가 모두 다 도이므로 일용행사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 곧 도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
- 23) 마음은 선천 후천의 마음이 있고 기운도 선천 후천의 기운이 있다. ()
- 24) 주문 삼칠자는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을 그려낸 천서가 아니다. ()
- 25) 몸은 심령이 사는 집이지만 심령이 내 몸의 주인은 아니다. ()
- 26) 수심정기 하는 법은 효.제.온.공이니 이 마음을 어린아이 같이 보호해야 된다. ()
- 27) 순일하고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정성이라고 한다. ()
- 28) 정성 공경은 변통할 수 없어도 믿음은 변통할 수 있다. ()
- 29) 인의예지를 행하는 것에는 믿음이 없어도 된다. ()
- 30) 신사께서 독공을 하고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근심이라고 하였다. ()
- 31) 성인은 세상 사람을 대해서 항상 온화한 기운으로 덕성을 베풀어 훈육하면서 다시는 잘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혹한 말로 꾸짖는다. ()
- 32) 이 세상 운수는 천지가 개벽하던 처음의 큰 운수를 회복한 운수가 아니다. ()
- 33) 운의 변천과 도의 변천은 같은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

2. 다음 물음에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 ()안에 번호를 쓰시오.

- 1) 다음 이치와 기운에 대해서 맞는 것은? ()
 - 가) 이치와 기운을 나누어보면 둘이요 합해보면 하나이다.
 - 나) 이치와 기운은 나눌 수가 없는 하나이다.
 - 다) 이치와 기운은 합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 라) 이치는 있는 것이고 기운은 없는 것이다.

- 2) 천지이기에서 처음에 기운이 나와진 곳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 가) 마음
 - 나) 몸
 - 다) 이치
 - 라) 음수

- 3) 형체를 이룬 후에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 가) 이치
 - 나) 기운
 - 다) 정신
 - 라) 마음
- 4) 천지부모에서 자식 된 도리라고 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
- 가) 음식만을 잘 대접하는 것
 - 나) 말씀만을 잘 듣는 것
 - 다) 공부를 잘 하는 것
 - 라) 지극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효도로 섬기는 것
- 5) 식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
- 가) 반포(反哺)의 이치
 - 나) 보은(報恩)의 도리
 - 다) 한울님을 부모님과 같이 섬기는 도리
 - 라)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도리
- 6) 부모에 대한 자식 된 도리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
- 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잘 대접하는 것
 - 나)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
 - 다) 지극한 정성으로 극진하게 공경하는 것
 - 라) 좋은 물건을 많이 사다 드리는 것
- 7) 천지의 조화로 기운이 이루어지고 이치가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 가) 내 몸이 생겨져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
 - 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어진 것
 - 다) 태어난 후 이치 기운 속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
 - 라) 손과 발을 움직여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것
- 8) 도결에서 대도의 중지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 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봉양하는 것
 - 나) 오관실행을 잘 하는 것
 - 다) 지극한 정성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열심히 수도하는 것
 - 라) 부모님 섬기는 도로서 한울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봉양하는 것과 같이 한울님께 식고를 잘 하는 것

9)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

- 가) 한울님께서 내리시는 꾸지람을 받을 것이 불 본 것 같이 확실하다.
- 나) 한울님은 불택선악 하시므로 상관 하지 않고 복을 내려 주신다.
- 다) 복은 내려 주시지 않을 지라도 꾸지람은 내려 주지 않는다.
- 라) 잘 하든, 잘 하지 않던 하등의 차이가 없다.

10) 다음 중 맞는 말은 어느 것인가? ()

- 가) 마음도 또한 기운에서 나온 것이다.
- 나) 마음에도 음과 양이 있다.
- 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도 기운은 바르다.
- 라) 한울은 사람 밖에 있다.

11) 「천지인.귀신.음양」에서 신사께서는 어떻게 해야 시천주라고 하셨는가? ()

- 가) 천지가 곧 부모라는 이치를 알아야
- 나) 한울님의 은덕을 알아야
- 다) 마음과 한울이 서로 화합해야
- 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치를 알아야

12)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한울님이 사랑하시는가? ()

- 가) 내 몸만을 위해서 노력한다.
- 나) 부모와 자식 등 내 가정만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다.
- 다) 마음을 한울님의 뜻에 따라 진실하게 쓴다.
- 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3) 사람의 몸에 있는 이치 기운이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

- 가) 몸이 건강해 진다.
- 나) 만물이 신령하게 된다.
- 다) 천지에 있는 이치 기운이 바르게 된다.
- 라) 사업이 잘 된다.

14) 어떻게 하는 것이 천지부모를 배척하는 것인가? ()

- 가) 천지부모 섬기기를 부모님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는 것
- 나) 식고를 잘 하는 것

- 다) 한울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잡신을 믿는 행위를 하는 것
 라) 수련을 열심히 하는 것
- 15) 천지부모를 배척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
 가) 그래도 전과 같이 잘 산다.
 나) 유산을 받지 못한다.
 다) 모든 일이 잘 안 된다.
 라) 천지부모가 진노하셔서 자손이 영락하게 된다.
- 16)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는 것(은악양선, 隱惡陽善)은 어떤 것인가? ()
 가) 사람들의 잘 한 일만을 칭찬하여 드러내 주는 것이다.
 나) 사람들이 잘 못한 일들을 숨겨주는 것이다.
 다) 잘 못한 일들은 덮어주고 잘한 일들은 칭찬하여 드러내 주는 것이다.
 라) 잘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모두 다 칭찬하여 들어내 주는 것이다.
- 17) 사람을 대하는 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가) 우, 묵, 놀을 잘 지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나) 사람의 시비를 가려 장점과 단점을 잘 분별하여 말하여야 한다.
 다) 부인이나 어린 아이의 말이라도 배우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라) 어린 아이 같이 하고 항상 꽃이 피는 듯이 얼굴을 가지라고 하셨다.
- 18) 마음으로 병을 낫게 하는 법은 어느 것인가? ()
 가) 마음을 다스리어 마음이 화하고 기운을 화하게 한다.
 나) 천명에 맞기고 일체 생각하지 않는다.
 다) 병원에 갈 것을 생각한다.
 라) 무조건 한울님에게 기원한다.
- 19) 천지의 정신이 모두 한 몸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관계 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가) 마음의 근원을 맑게 한다.
 나) 기운바다(기운의 전체)를 깨끗하게 한다.
 다) 욕심이 생기지 않게 한다.
 라) 빨리 도를 통하겠다고 생각한다.
- 20) 대신사께서 하신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
 가) 정성이 한울에 이르러 천명을 받으셨다.

- 나) 용시용활의 설법을 하셨다.
- 다) 공경이 지극하여 천어를 들으셨다.
- 라) 믿음이 지극하여 목계가 한울님과 합하셨다.

21) 도에 대한 생각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

- 가) 배고플 때 밥 생각 하듯이
- 나) 추울 때 옷 생각 하듯이
- 다) 취미생활 하듯이
- 라) 목마를 때 물 생각 하듯이

22) 신이 모이고 기운이 모여 환하게 깨달음이 있도록 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

- 가) 사사로운 욕심을 끊는다.
- 나) 사사로운 물건을 버린다.
- 다) 사사로운 영화를 잊는다.
- 라) 도를 빨리 통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23) 우리 도의 운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

- 가) 개벽의 운수
- 나) 성쇠의 운수
- 다) 황하수가 맑아지는 운수
- 라) 후천의 운수

24) 개벽운수에서 일후에 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 가) 사람들이 다 손바닥에 시천주 주문을 써 달라고 할 것이다.
- 나) 500명 도통 군자가 나올 것이다.
- 다) 포덕사를 세계에 파송하면, 모든 나라가 천국이 될 것이다.
- 라)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제일 못난이가 상재(上才)요, 도통한 사람일 것이다.

3. 다음 빈칸에 맞는 글자를 넣으시오.

1) 天地卽□□요 父母卽□□니 天地父母가 □□也니라.

2) 吾師之大道宗旨 第一은 事天地如事□□之道也요 第二□□는 如□□父母之理也니

3) 人是天이니 □□□□ 하라 吾見諸君하니 □□□多矣라 可嘆也요.

4) 吾道는 只在□□□三字이라 若非□□이면 實難□□이요

5) 新乎□ 新乎□에 □與物이 亦新乎矣리라.

1. 다음 풀이가 맞으면 ○, 틀리면 × 를 하시오.

- 1) 신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설과 글로 지으신 것과 제자들과 문답하신 내용을 한데 묶어 놓은 것이 신사님 법설이다. (×)
- 2) 천지 이기에서는 이치와 기운의 근본은 둘이 아니고 하나로서 (×)
- 3) 화해 나오는 것은 한울의 이치요 움직이는 것은 한울의 기운이니, 처음에 기운이 나와진 것은 이치요, 형체를 이룬 뒤에 움직이는 것은 기운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함해 보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
- 4) 천지부모에서는 “天地即父母요 父母即天地니 天地父母가 一體也니라” 고 하시어 천지부모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대신사께서 천지가 곧 부모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시고 (×)
- 5) 천지 섬기는 것을 부모님 섬기는 것과 같이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
- 6) 한울님은 오행의 빼어난 기운으로 사람을 이루어 놓으셨고, 오행의 으뜸가는 기운으로 곡식을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셨으며, (○)
- 7) 비와 이슬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사람에 의해서 조화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 된 도리로서 지극한 정성으로 극진하게 공경하며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 뜻에 따라 행하는 것과 같이 한울님을 섬기며, 식고는 반포의 이치며 은혜에 보답하는 도리니 부모님을 잘 대접하는 것과 같이 식고를 잘 해야 되고, 잠깐 동안이라도 한울님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
- 8) **도결은** 포덕 34 년 1 월에 신사께서 대도의 종지와 근본을 밝혀 더욱 지극한 정성으로 수도하라고 당부하신 통유문 이었다. (○)
- 9) 먼저 도의 근본을 밝히셨으니, “天地父母四字는 字雖各異나 其實은 都是一天字也니라” 천지부모는 글자는 비록 다르나 그 실상은 하나의 한울이다. 옛날 사람들은 천지가 부모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대신사님께서 처음으로 천지가 곧 부모라는 이치를 밝혀 천지를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라고 하셨다. (×)
- 10) 지금 사람들은 부모가 나를 낳고 길러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자세히 알 수도 없는 한울님이 곧 부모와 같다는

이치를 알고 효도하려는 사람은 더욱 없는 것이다. 또한 지금 사람들은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 주셨다는 것만 알고 천지의 이치 기운으로 내가 생겨져 나왔다는 것은 알지 못하며, 태어난 뒤에도 한울님의 이치 기운 속에서 살고 있으며, 행하고 앉고 누우며 말하고 웃는 것이 모두 다 천지 귀신의 조화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천지의 은덕이 부모의 은덕과 같으니 천지 섬기는 것을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吾師之大道宗旨 第一은 事天地如事父母之道也요 第二는 食告如孝養生存父母之理也니” 라고 하여 한울님을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섬겨야 된다고 하신 것이다.

만일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한울님께서 내려 주시는 꾸지람을 받게 되는 것이다. (○)

- 11) 한울님께서 항상 간섭해 주시므로 영물이 되어 살아 있는 것이고, 한울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력은 없어진다. (○)
- 12) 부부가 불화하면 한울님이 싫어하시어 화가 생겨지는 것이니 부부가 화순하여 함께 같이 한울님을 잘 섬기어 한울님의 간섭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13) 천지인 귀신 음양 한울님은 이치 기운으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이루어 놓으시고 만물과 사람 안에 계시니 한울은 곧 만물의 정기며 사람의 정기이다. (×)

14) 마음과 기운은 하나의 기운이지만 구분해 보면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고 생각한 것을 이루려고 움직이는 것은 기운이다. (○)

15) 이 마음은 한울에 있는 것이고 한울은 마음에 있는 것이니, (○)

16) 기운은 혼원한 한 덩어리이고 마음은 자취가 없는 허령이지만 무궁한 조화가 있는 것이다. (×)

그러나 한울님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마음이 한울님과 떨어져 있으면 시천주라고 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 항상 한울님을 생각하여 마음이 한울님과 하나로 화합해야 바로 시.정.지(시천주)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다.

17) 허와 실 마음은 형체도 없고 자취도 없어 빈 것이지만 빈 가운데 영이 있어서 지각(知覺)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다. (○)

18) 천지의 생명체는 진실한 것이니 마음을 망령되고 속이는 방향으로 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방향으로 써야 되며, 우주 안에 꼭 차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이치 기운이니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이치 기운을 바르게 하면 천지에 있는 이치 기운이 바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

- 19) **심령지영** 세상 사람들이 음양, 귀신, 조화, 명, 기운 등의 근본을 투철하게 안 뒤에라야 바로 한울을 안다고 할 수 있다. (○)
- 20) 심령의 영험을 알지 못하고 다만 잡신의 영험만을 아니 이것이 큰 병이다. 한울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잡신을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은 천지부모를 배척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천지부모가 진노하여 모든 일이 잘 안 될 것은 물론이요 자손이 쇠퇴(영락)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한울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체로 잡신을 믿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
- 21) **대인접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울님을 모신 한울사람이며 모든 물건에도 한울님의 기운이 통해 있으니 한울님을 공경하여 섬기는 것 같이 사람을 공경하여 섬기고 물건까지 공경해야 되며, (○)
- 22) 일용행사가 모두 다 도이므로 일용행사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 곧 도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잘못된 일들은 덮어주고 잘 한 일들은 칭찬하여 들어내 주며, 어린 아이의 모양 같이 하고 항상 꽃이 활짝 핀 모양으로 대해야 사람을 화하고 덕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으며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
- 23) **영부 주문** 마음과 기운의 근본은 하나이지만 마음은 선천의 마음과 후천의 마음이 있고, 기운도 역시 선천의 기운과 후천의 기운이 있다.
- 24) 대신사께서 한울님으로부터 받으신 삼칠자 주문은 곧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을 그려낸 천서인 것이다. (×)
- 25) **수심정기** 마음의 근원을 맑게 하고 기운의 전체를 깨끗이 하여 욕심이 생기지 않게 하면 천지의 정신이 모두 한 몸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내 몸은 심령이 사는 집이요 심령은 내 몸의 주인이다. (×)
- 26) 심령이 내 몸에서 잘 활동하도록 하려면 효.제.운.공의 마음을 어린아이 보호하는 것과 같이 잘 보호해서 수심정기를 해야 된다. (○)
심령은 오직 한울이니 이 세상에서 심령보다 더 높고 더 큰 것이 없으며, 신신(神神)영영(靈靈)하고 호호(浩浩)탕탕(蕩蕩)하여 모든 일을 밝게 알고 물건을 대하면 공손하게 대한다고 말씀하셨다.
- 27) **성경신** 우리 도는 성 경 신에 있으므로 성경신에 능해야 성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순일하고 쉬지 않는 것을 정성이라 이르나니 이 순일하고 쉬지 않는 정성으로 천지와 법도를 같이 하고 운을 같이 하면 가히 대성대인이라고 이를 수 있다. (○)

- 28) 정성 공경 믿음은 자기가 직접 해야만 되는 것이므로 부모 형제라도 변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
- 29) 인의예지를 행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
- 30) **독공** 독공을 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없으니 도를 이루려는 사람은 반드시 독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독공을 하려면 먼저 도에 대한 생각을 배고플 때 밥 생각 하듯이, 추울 때 옷 생각 하듯이, 목마를 때 물 생각 하듯이 해야 하며, 사사로운 욕심을 끊어 없애 버리고 사사로운 물건을 다 버리고 사사로운 영화를 다 잊어버려 오직 도에 대한 생각만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
- 31) **성인지 덕화** 성인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항상 온화한 기운으로 덕성을 베풀어 훈육하여 잘 알아듣도록 타이르고 가혹한 말이나 꾸지람을 하지 않는다. (×)
- 32) **개벽운수** 이 세상 운수는 천지가 개벽하던 처음의 큰 운수를 회복한 운수이므로 (×)
- 33) 운의 변천과 도의 변천은 같은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도의 운수는 개벽운수라, 지금은 도를 권해도 듣지 않지만 일후에는 사람들이 다 손바닥에 시천주 주문을 써 달라고 할 것이고, 포덕사를 세계에 파송하게 될 것이며, 우리 도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자연히 천국이 될 것이라고 신사님께서 말씀하셨다. (×)

2. 다음 물음에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 ()안에 번호를 쓰시오.

- 1) 가 2) 다 『천도교경전』 「천지이기」 246 ~ 247 쪽 1-2), 3) 참조
- 3) 나 『천도교경전』 「천지이기」 247 쪽 1-3) 참조
- 4) 라 『천도교경전』 「천지부모」 251 쪽 1-7) 참조
- 5) 라 6) 다 『천도교경전』 「천지부모」 253 쪽, 「도결」 262 쪽
- 7) 나 『천도교경전』 「도결」 258 ~ 259 쪽 1-3) 참조
- 8) 라 9) 가 『천도교경전』 「도결」 262 쪽
- 10) 가 11) 다 『천도교경전』 「천지인 . 귀신 . 음양」 267 쪽, 269 쪽
- 12) 다 13) 다 『천도교경전』 「허와 실」 272 쪽, 273 쪽
- 14) 다 15) 라 『천도교경전』 「허와 실」 277 쪽
- 16) 다 17) 나 『천도교경전』 「대인접물」 282 쪽, 275 ~ 287 쪽
- 18) 가 『천도교경전』 「영부주문」 291 쪽
- 19) 라 『천도교경전』 「수심정기」 295 쪽
- 20) 나 『천도교경전』 「성 . 경 . 신」 308 쪽

- 21) 다 22) 라 『천도교경전』 「독공」 311 쪽, 312 ~ 313 쪽
23) 다 24) 나 『천도교경전』 「개벽운수」 323 ~ 328 쪽, 333 쪽

3. 다음 빈칸에 맞는 글자를 넣으시오.

- 1) 父母(부모), 天地(천지), 一體(일체) 『천도교경전』 「천지부모」 249 쪽
- 2) 父母(부모), 食告(식고), 孝養(효양) 『천도교경전』 「도결」 262 쪽
- 3) 事人如天(사인여천), 自尊者(자존자) 『천도교경전』 「대인접물」 278 쪽
- 4) 誠敬信(성경신), 大德(대덕), 踐行(천행) 『천도교경전』 「성.경.신」 303 쪽
- 5) 天(천), 地(지), 人(인) 『천도교경전』 「개벽운수」 323 쪽